

DMZ철조망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자 이 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교황청을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십자가를 선물하였다. 이 십자가는 비무장지대(DMZ) 폐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로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 정착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고자 제작하여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전시회에는 DMZ의 폐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136개가 전시된다. 1953년 휴전 선포 후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68년을 합친 숫자다.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북이 각각 겪은 분단의 고통을 하나로 합쳐 평화를 이루자는 염원을 담았다.(뉴시스 2021.10.29자 “문 대통령, 로마서 DMZ철조망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관람” 기사에서 발췌)

문대통령이 ‘평화의 십자가’를 제작하여 교황에게 선사했다는 것은 의미가 영적으로 볼 때 심장한 일이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십자(十字)의 의미

십자가 하면 일반인들은 예수가 순교당했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떠올리며 기독교나 천주교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십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정도령, 미륵불, 구세주)을 뜻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십자(十字)가 어떻게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지 파자풀이로 살펴보자. 십(十)을 파자하면 일(一)과 일(一)이 된다. 여기서 일(一)은 임금 왕(王)자의 첫 획이며 임금을 상징하고, 일(一)은 1등을 의미하므로 해석하면 임금은 임금인데 1등인 임금을 의미하므로 세상을 구원하는 왕, 즉 구세주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하고 '평화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파자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십자는 아라비아 숫자 10으로도 쓸 수 있는데 10 또한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은 1등을 의미하고, 0은 완성을 의미하므로 10은 완성된 하나님을 뜻하게 된다. 그러므로 10 수 또한 구세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흑십자(黑十字)와 백십자(白十字)

그런데 예수와 십자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기독교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순교당했다고 하나 성경과 불경, 격암유록 등의 경전으로 검토해 보면 구세주(미륵불, 정도령)가 아닌 예도 구세주로 알려져 있고, 더욱이 구세주가 아닌 예도 예수의 상징으로 십자가 잘못 사용되어 왔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민족의 위대한 경전이자 예언서인 격암유록 도부신인(桃符神人) 편에는 그 연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십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즉 흑십자와 백십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도부신인 편에 “일심수도공궁인(一心修道弓弓人)들 십자음양판단(十字陰陽判端)하소; 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사람들이여! 십자에는 음십자와 양십자가 있으니 잘 판단하라!”라고 명백하게 음십자와 양십자를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다음 구절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지면 관계상이라ে ‘천신부이지귀승’ 기사 참고! 결론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음양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분명히 양(陽)이 먼저고 음(陰)이 나중이어야 하지만 양신(陽神)인 하나님이 음신(陰神)에게 패배한 고로 신귀(神鬼)라고 해야 되나 귀신(鬼神)이라고 하고 있고, 외내(外內)라고 하여야 되나 내외(內外)라고 하고 있으며, 양음이라고 말해야 하나 음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함으로써 사망권을 쥐고 있는 음이 먼저 십자를 쟁탈하여 쓰게 되어 먼저 사용한 십자는 음십자인 흑십자이고, 양이 음을 이기게 된 다음의 십자는 양십자인 백십자

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격암유록 도부신인 편의 말씀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먼저 십자를 사용한 기독교의 십자는 흑십자가 되며, 나중에 나오는 진실한 십자는 백십자가 된다는 것이다.

궁궁을에서 백십자가 나온다

격암유록에서는 궁(弓)자를 이용하여 백십자를 만드는데 궁(弓)자를 180도 회전하여 나온 글자를 배궁이라고 하며, 궁과 배궁을 합자하여 백십자(𠂇)가 나오게 된다. 백십자는 격암유록의 주인공인 정도령(구세주, 미륵불)을 상징하고, 참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게 되면 가짜 구세주인 예수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여 백십자로 이 세상에 출현하였지만 현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은 아직도 흑십자를 뜻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서 그들이 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지만 분신을 행하여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구세주 정도령은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마귀세상을 하늘나라로 뒤바꾸는 천지공사를 행하고 있다. 구세주 정도령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실 때에는 마귀들의 눈을 피하거나 기만작전으로 하게 된다고 하셨는 바 구세주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한국의 통일작업을 문대통령을 움직여 하고 있을 터인데 만일 ‘평화’의 십자가를 제작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노력을 환기시키고자 했던 문대통령의 뜻이 이루어져, 영원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고(현재 휴전 상태이다) 평화가 계양된다면 흑색으로 만든 그 십자가가 백색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신귀라고 할 수 없고 남양여음(男陽女陰) 분명하지만 음귀가 발동하는 세상이 되어 남자가 지고 여자가 이겨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이니라. 지귀가 승리하고 천신이 패배하여 양음이라 못하고 음양으로 되었고 남외(男外)와 여내(女內)가 분명하지만 내외(內外)라고 부르는 것일세.

음이 왕성하고 양이 쇠약함으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천지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십자의 도를 탈취함에 따라 먼저 십자의 도에 들어간 자는 음기를 받아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요 .중략. 음귀 십자는 흑십자(黑十字)요 양신 십자는 백십자(白十字)인데 십자라도 음양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모르고서 십승(十勝) 선도(仙道)를 찾을 수 있겠는가?*

천신부이지귀승(天神負而地鬼勝)

격암유록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으려면 천신(하나님)이 귀신(마귀)에게 패배했다는 내용이 있다. 지면 관계상 위에서 다루지 못해 여기에 옮겨본다.

“천신지귀분명(天神地鬼分明)하고 남존여비분명(男尊女卑分明)커늘 천지리기(天地理氣)엇지하여 반복칭號(反覆稱號) 뜻을아소 신귀(神鬼)라고 아니하고 귀신(鬼神)이라 칭호(稱號)이요 외내(外內)라고 아니하고 내외(內外)라고 엇지하노 천지상쟁혼돈시(天地相爭混沌時)에 천신부(天神負)이지귀승(地鬼勝)을 자연유(自然由)로 인(因)하여서 승리자(勝利者)의 노름으로 천지반복(天地反覆)할일업서 지

상권(地上權)을 일었다네 귀신세상(鬼神世上)되었으니 신귀(神鬼)라고 할수업고 남양여음(男陽女陰分明)분명치만 음귀발동차세고(陰鬼發動此世故)로 남부여승탈권(男負女勝奪權)으로 귀승신부(鬼勝神負)할일없어 양음(陽陰)이라 못하고서 음양(陰陽)으로 되었으며 남외여내분명(男外女內分明)치만 내외(內外)라고 칭호(稱號)로세 음성양쇠(陰盛陽衰)되음으로 혼천마세사지권(撒天魔勢死之權)을 이러므로인(因)하여서 선탈십자귀세(先奪十字鬼勢)오니 .중략. 음귀십(陰鬼十)은 흑십자(黑十字)요 양신십(陽神十)은 백십승(白十勝)을 음양분해(陰陽分解)모르고서 십승선도(十勝仙道)찾을소!”

하늘은 신(天神)이며 땅은 귀(地鬼)임이 분명하고 남존(男尊)과 여비(女卑)가 분명하거늘 천지이기(天地理氣)를 어찌하여 뒤집어서 부르지 않는 뜻을 아시오(천지를 지전이라 아니하고 리기를 기리라 하지 않는다.) 신귀(神鬼)라고 아니하고 귀신(鬼神)이라 칭호하며 외내(外內)라고 아니하고 내외(內外)라고 어찌하는가?

천신(天神)과 지귀(地鬼)가 서로 싸우는 중에 혼돈할 때 천신이 지고 지귀가 이긴 까닭으로 승리자의 놀음으로 천지가 뒤집히니 천신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지상권을 잃어버렸다네. 귀신세상 되었으니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9>

“나라는 것을 잊어버려야”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었으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간의 탈을 벗고 하나님으로 환원되어야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나라를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려면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전체를 맡겨서 하나

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심을 받고 주강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내가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된다.*

발행인칼럼

승리제단의 교리

승리제단의 교리가 매우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나 승리제단의 교리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승리제단의 교리이다.

하나뿐인 교리의 중요성

교리가 오직 이것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종교 역사를 참고하면 교리 논쟁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난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동양의 종교, 즉 불교, 유교, 도교 등에서는 교리로 인한 전쟁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유독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교리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많이 있다. 사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뿌리가 아브라함이라 같은 종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원수가 되어 십자군 전쟁을 수세기에 걸쳐서 해왔으며, 같은 기독교인 가톨릭교(구교)와 개신교(프로테스탄티즘, 신교)간에도 30년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종교전쟁이 있었고, 더욱이 이슬람교인 수니파와시아파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도대체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종교의 존재목적이 의심될 정도이다.

이처럼 교리 논쟁에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승리제단의 교리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점은 교리 논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흑자는 조희성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교리가 아니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승리제단의 진리체계’라고 하겠다. 이것은 조희성님을 성경상의 구세주로, 불경상의 미륵불로, 격암유록 등의 예언서의 주인공 정도령으로, 증산계열의 대두목으로 인정하는 체계적인 학문과 영생학 및 조희성님의 간증담 등의 총체를 말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승리제단의 진리체계’의 일부는 앞으로 많이 보완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격암유록 예

언 중에 선입자 중입자 말입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언제가 그 시기인지에 대한 구세주의 말씀은 변해왔다. 그것은 구세주께서 격암유록을 해석한 해석자의 의견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92년도를 말입의 시기로 알고 구세주께 말씀드리면 구세주님은 그대로 단에서 발표를 하셨으며, 2000년을 말입의 시기로 말씀 올리면 그대로 발표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2008년에 구세주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온다고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주장은 최모라고 하는 고서연구가의 주장이었는데 구세주께서는 그 주장을 그대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구세주께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사형을 받을 즈음에 갑자기 2년을 앞당겨서 2006년부터 하나님의 빛이 발한다고 말씀을 변경하셨다. 알고 보니 이장길 총무가 격암유록을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다. 격암유록은 우리 승리제단의 경전입니다만 그 해석이 경전이 아니라 원문이 경전이라는 말이다.

승리제단 경전은 팔만대장경식으로

그렇다면 승리제단의 경전은 어떠한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어리석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교의 팔만대장경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팔만대장경이 석가모니의 설법과 불가의 실천규범과 계율과 후세의 학자들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앞으로 승리제단의 경전이 만들어진다 면 첫째,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고, 둘째, 구세주를 따르는 학자들이 편낸 논문이나 해설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승리신문사에서는 구세주의 말씀을 입력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있고, 입력된 말씀을 읽기 쉽게 편찬해서 발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은 승리신문사가 행하고 있는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전편찬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5대공약을 했고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끝길으로 승리하라!

구세주
예 배
말씀집

신간서적
승리제단 지구용

6

2001년 3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277쪽 / 큰본문글씨

▶ 구세주 예배 말씀집 6집 펴냄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